

# 이슈

2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253호

## ‘두 얼굴’의 이성민

설의 남자 ▶1면에서 이어집니다

“박통 역을 제안받자마자 시나리오도 보지 않고 오케이 했어요. 이런 인물을 연기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알려진 실존인물을 연기한 적도 없고요. 탈색 수락하고 꼼꼼이 생각하다보니 큰 문제가 생겼죠. 그 분과 제가 너무 안 닮았더라고요. 하하!”

우려와 달리 극중 이성민은 그 어떤 배우들보다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한다. 귀에 보청기를 덧대고 잇몸에 교정기를 끼우는 분장의 힘도 있지만 말투와 행동은 물론 습관처럼 취하는 손동작까지 전부 찾아내 익힌 덕분이다.

“유튜브 도움을 받았죠. 가슴을 활짝 펴고 걷는 걸음걸이부터 언제나 담배를 쥐고 있는 손가락의 모양, 양손을 깎지 깎 모습까지 찾아 보면서 익혔어요. 어느 날 촬영장 바닥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헉! 제 눈에도 정말 닮았더라고요. 오랜 기간 1인자로 살면서 가진 피로감, 그 살벌한 시대의 권력자로서 불안감도 표현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까지 풀어내려 했죠.”

**●연기는 자극의 연속…가족의 평가에 귀 기울여**  
이성민은 아내와 딸의 의견을 늘 꼼꼼하게 듣는다. 대중의 반응이 궁금할 때면 가족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

“박통 역이라니까 딸이 ‘괜찮겠냐’고 걱정하더라고요. 하하! 관객은 현명합니다. 영화는 영화로만 봐 주니까요. 더구나 사상이나 이념을 강요하는 작품도 아니잖아요.”

한때 예능프로그램 유행증이 있었다는 이성민은 두 영화 개봉을 앞두고 SBS ‘동물농장’부터 ‘미운 우리 새끼’ 같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온라인 실시간 토크까지 섭렵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변해야 살죠!”라고 웃으면서 “내가 먼저 나서야 후배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스터 주’를 함께 한 ‘애정하는’ 후배 배정남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제가 술을 못해요. 알정이 없는 날엔 집 밖에 가지 않아요. 그러다 정말 심심하면 배정남한테 전화해서 같이 밥 먹죠. 정남이는 우리 집사람이 더 예뻐해요. 저보다 아내와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요즘엔 정남이의 소식을 아내한테 듣는 다니니까요.”

이성민은 설 연휴를 뜨겁게 보낸 뒤 새 영화 ‘리멤버’ 촬영에 돌입한다. 친일파에게 모든 것을 잃은 80대 노인이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다. 촬영을 마친 ‘제8일의 밤’ 개봉도 앞뒀다.

“제 얼굴에 누아르나 액션의 분위기는 없잖아요. 하하! 그저 근사한 캐릭터를 만나면 제 방식대로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리멤버’에서는 80대 노인을 연기해야 하니까 여러 모로 도전이예요. 흥미로운 캐스팅이기도 하죠. ‘남산의 부장들’처럼, 박정희 대통령과 전혀 닮지 않은 저를 캐스팅한 것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 이성민

▲1968년 12월4일생 ▲1985년 경북 영주 지역극단에서 연기 시작 ▲2002년 서울 대학로 극단 차이무 활동, ‘비연소’ ‘돼지사냥’ 등 ▲2012년 MBC 드라마 ‘골든타임’ ▲2014년 tvN 드라마 ‘미생’ ▲2018년 영화 ‘공작’ 대종상 남우주연상·올해의영화상 남우주연상 등 ▲2020년 tvN 드라마 ‘머니게임’, 영화 ‘리멤버’ ‘제8일의 밤’ 등

## 호주와 4강전 앞둔 U-23대표팀,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유



한국 U-23 대표팀이 22일(한국시간) 호주와 2020 AFC U-23 챔피언십 4강전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한국축구는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는 새 역사를 쓴다. 배이스캠프인 방콕에서 가법게 러닝하고 있는 선수들.

# 정해진 주전 없어 더 무서운 김학범호

**엔트리 23명 모두 주전 활용 가능  
3전승·극장골·과격도 드라마틱  
무더운 날씨, 파격 로테이션 예고  
골키퍼와 센터백은 기존 틀 유지**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태국에서 진행 중인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순항하고 있다.

한국은 22일(한국시간) 수도 방콕 인근의 랑싯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대회 결승 진출을 다툰다. 부담스러운 한 판이다. 이 경기에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을 향한 한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국-호주전, 사우디아라비아-우즈베키스탄전 승자는 결승전 결과와 관계없이 7월 개막하는 2020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거머쥔다. 4강에서 패하면 3·4위전을 반드시 잡아야 도쿄로 향하게 된다.

“외나무다리 헐투”를 펼칠 호주는 물론, 아시아권 언론들은 한국을 이번 대회 최강자로 꼽고 있으나 정작 한국은 이 대회에서 한 차례도 정상에 서지 못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티켓이 놓고 카타르에서 펼쳐진 대회에서 거둔 준우승이 최고의 성적이다. 2014년 오만, 2018년 중국 대회에서는 4위에 그쳤다.

그러나 U-23 대표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른다. 매 경기를 결승처럼 임한 결과,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했고 8강

전도 후반 종료직전 터진 ‘버저버터 결승골’을 앞세워 연장승부를 피했다.

무엇보다 정해진 베스트11이 없다는 부분은 대단한 강점이다. 다른 팀들은 대개 주전·비주전급으로 구분해 운영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대회 엔트리(23명)를 고루 활용하며 신선함을 더하고 있다.

올림픽 본선을 바라보는 테스트로 보는 시선도 있으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회가 벌써 33~35도, 평균 60%의 높은 습도 속에 치러지는 만큼 체력 안배는 필수다. 특히 호주는 한국보다 하루 더 쉬며 회복에 전념했다. 김 감독도 결전을 하루 앞둔 21일 “무더운 기후로 체력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한 번 대규모 로테이션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다만 수비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앞선 4경기를 소화한 송병근(전북)이 골문을 책임지고 김진아~윤준규(이상 서울)~이유현(전남)~강윤성(제주)이 좌우 풀백, 이상민~김태현(이상 울산)~정태욱(대구)~김재우(부천)가 경쟁해 센터백은 최대한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토너먼트는 단단한 수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걸 김 감독은 잘 알고 있다.

확고한 주전은 없지만 강력하고, 단단한 팀인 U-23 김학범호는 마지막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U-23 한국, 역대 호주전서 10승2무2패 압도

**작년 김학범 체제서 2-2 무승부  
이번 대회 직전 연습경기선 1-1**

김학범 감독(60)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15분(한국시간) 태국 랑싯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4강전을

치른다. 2020도쿄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는 1~3위 3팀이 올림픽 본선 진출 자격을 얻는다. 한국이 호주를 꺾으면 결승전 결과에 관계없이 목표로 했던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한다.

호주와의 U-23대표팀 간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10승2무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김 감독 체제에서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벌어진 AF

C U-23챔피언십 조별 예선에서 만나 2-2로 비겼다.

공식경기는 아니었지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한 차례 격돌했다. 한국과 호주는 말레이시아 팔라렝푸르에서 열린 대회 연습경기를 가졌다. 결과는 1-1 무승부. 대회 직전 팀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후반 50분씩, 선수 교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공식 경기로 인정되지 않았다.

8강전까지 4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

하며 순항 중인 한국과 달리 호주는 난항 끝에 4강에 올랐다. 조별리그에서는 1승2무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8강전에서는 시리아와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승리, 합계 4강에 고지를 밟았다. 4경기에서 5골·3실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호주는 전통적으로 피지컬과 체력이 좋은 팀이다. 수비에서 간혹 약점을 드러내는 한국이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특히 조커 역할을 하는 알 하산 투레(20)는 주요 경계 대상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일본 잡은 그때부터 100% 올림픽 본선행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선)

### 한국축구 올림픽 예선 도전사

김삼락 감독 “일본은 야구나 해라” 88올림픽 이전 24년간 암흑기도

**# 한국축구가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건 1948년 런던 대회 때다.** 해방 이후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올림픽 출전은 그 자체 만으로도 기적이었다. 당시는 대륙별 예선이 없었다. 교통 시설이 열악해 런던으로 가는 길은 고행이었다. 요즘 같으면 직항으로 12시간이면 충분한 곳을 9개국 12개 도시를 거치며 20박 21일 만에 간신히 도착한 건 유명한 일화다. 1952년 헬싱키 대회도 신정만 하면 출전할 수 있었다. 전쟁 중이었지만 선발전도 열어 스탠포

포함 14명의 초미니 선수단을 꾸렸다. 문제는 ‘돈’이었다. 설왕설래 끝에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승낙을 받지 못해 모든 구기 종목의 참가가 무산됐다.

**# 처음으로 대륙별 예선이 열린 건 1956년 멜버른 대회 때다.** 한국은 일본을 물리치면 본선에 오를 수 있었다. 원래 홈 & 원정 방식이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의 방문을 불허하던 때라 2차례 모두 도쿄에서 열렸다. 1승1패(0-2, 2-0)로 추첨을 했는데, 한국은 운이 없었다. 1960년 로마 대회 예선에선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대만에 몰수패를 당했다. 1968년 멕시코시티 대회 예선에선 일본과 4승1무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밀려(일본 +22, 한국 +12) 본선행이

좌절됐다. 1980년대 중반까진 아시아 예선 통과도 쉽지 않은 암흑기였다. 1964년 도쿄 대회에 참가해 3전 전패를 당한 뒤 자동 출전한 1988년 서울 대회까지 본선 무대를 밟는데 무려 24년이나 걸렸다.

**# 날개를 편 건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부터다.** 이 대회의 특징은 연령 제한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나이 불문이었지만 이때부터 23세 이하만 출전이 가능했다. 다만 경기력을 위해 연령 제한이 없는 3명의 와일드카드를 허용했다. 한국은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카타르에 이어 2위로 본선에 올랐다. 특히 일본전 이 화제였다. 경기 전날 일본 감독의 ‘종이호랑이’라는 빈정거림에 열 받았던 김삼락 감독은 1-0으로 이긴 뒤 “일본은 다시는 축구할 생각 말고 야구나 해라!”고 일갈해 화제를 뿌렸다. 이후 한국은 2016년 리우 대회까지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 스타의 등용문이었다. 또 값진 기록도 나왔다.** 그 중 최용수(현 FC서울 감독)는 특별했다. 예선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서 사랑을 받았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아시아 1차 예선에서 8골, 최종예선에서 3골 등 총 11골을 넣은 최다골 기록 보유자다. 2004년 아테네 대회 예선에선 김호곤 감독(현 수원FC 단장)이 이끈 대표팀이 전승(8승)과 함께 무실점으로 통과해 감재를 받았다.

**# 8회 연속 본선 출전(1988~2016년)은 세계 최다 기록이다.** 연령별 대회에서 한국축구의 경쟁력은 이미 검증됐다. 이제 9회 연속을 노린다. 2020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4강에 오른 한국은 22일 열리는 호주전에서 이기면 또 한번 기록을 경신한다. 이번 대회 1~3위는 도쿄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는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의 어깨가 무겁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